

有望市場으로 浮上한 “아루마”

앞으로 化肥 數 10 万吨씩 輸入

重農政策의 採択實施에 따라

지금까지 化学肥料의 輸入에서 별로 눈에 띄지않았던 “아루마”가 同國의 重農政策에 따라 앞으로 數 10 万吨을 購買할 可能性이 짙어 有望輸出市場으로 浮上할 公算이 크다.

最近入手된 海外情報에 依하면 아루마政府는 長期的인 國家經濟 再建計劃 가운데서 第一로 農國振興에 重點을 두기로 하고 있어 이 結果 앞으로 海外로부터 化学肥料나 農藥의 輸入을 相當히 늘릴 計劃이라고 한다.

同國의 肥料需給狀況을 보면 重農政策에 따른 年間肥料需要는 45 万吨程度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現在는 尿素 7 万吨(實生産)을 主体로 15 万吨(能力)을 限度로 自給이 不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나머지 30 万吨 程度를 海外로부터의 供給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될 實情인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우리 韓國 등 3 個國 追加

77 年度 海外商品別 貿易會議

日本通産省이 主催하는 77 年度 海外商品別 貿易會議 (化学肥料部門)
는 오는 11 月 24 日 ~ 25 日의 日程으로 香港에서 開催될 予定인데
이번 會議에는 従來의 対象市場外에 우리 韓國을 비롯 인도네시아
와 베트남의 3 個國을 새로이 追加키로 했다 한다.

이와같은 追加背蘊는 우리 韓國과 인도네시아가 尿素의 輸出國으로
急成長을 하고 있어 日本의 “ 라이벌 ”로서 注目할 存在가 되어
있다는 点에서 日本側에서는 이번 貿易會議에서 이러한 兩國의 새
로운 움직임을 捕捉하여 앞으로의 日本의 東南亞에서의 肥料輸出振
興을 従來와는 다른 角度에서 檢討하려는데 目的을 두고 取한 것
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同 會議에 參加해온 対象市場은 타이, 말레이시아, 필립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印度, 네팔, 방구라데시, 뉴-질랜드, 후이지 - 등
이었다.

當分間 FOB \$ 150 水準維持

美 DAP 輸出價格 小康狀態

最近의 海外情報에 依하면 美國의 DAP (18 - 46) 輸出價格은 요즘 別다른 變動없이 앞으로 當分間은 FOB \$ 150 (BULK) 가까운 水準을 維持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한다.

美國의 肥料價格은 內需販賣에 있어 全體的으로 軟化의 徵兆가 보여 DAP도 若干 값이 떨어지는 氣勢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傳해진바 있는데 輸出面에 있어서는 如前히 各國의 去來가 旺盛한데다 印度와 25萬屯의 契約이 成立되는 事實 등으로 當分間은 下落할 徵兆가 보이지 않아 FOB \$ 150 가까운 水準에서 小康狀態를 持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다.